

지식서비스 산업의 현황과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velopment Policies of Knowledge-based Service in Korea

홍길종(Gil-Jong, Hong)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강사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 II.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 V. 결 론 |
| III. 미국과 일본의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정책 분석 | 참고문헌 Abstract |

Abstract

Knowledge-based Service evolution and the e-business has emerged as a new economic activity and beyond the time and space limitations. But the Enterprises have been too inactive in their willingness and readiness to adopt e-business models and processes owing to the lack of the directions of e-business, the insufficient network infrastructures and capitals, etc.,

In this circumstance, as part of this research, This Papers have conducted a survey on the e-business and information conditions and status among the Enterprises.

In Conclusions, this study Study on the Informationalization of the Enterprises and 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 Enlarge Strategics for building competition of Enterprises.

This study has suggested potential plans to reinforce based in the Knowledge-based Service.

Key Words : Knowledge-based Service, Service

I. 서론

21세기의 국제경제는 전통적인 굴뚝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이 막을 내리고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 전환하기 위한 문명사적인 중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주도 하는 새로운 경제(New Economy)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는 전통적인 대량생산방식을 탈피하면서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기초하여 새로운 생산요소가 부가가치를 높게 창출시키고 있다.

경제구조가 고도화될 수록 탈공업화의 진행, 산업의 기술·지식집약화, 소득수준의 향상, 기업의 아웃소싱 확대 등에 따라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T) 발달은 서비스산업과 타 산업간 연관관계심화, e-비즈니스 확산, 기업의 아웃소싱 확대 등에 따라 경제의 서비스화를 가속화하고, 아울러 IT 등에 힘입어 지식의 정보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지식과 정보의 창출·확산·활용이 부가가치 창출과 개인·기업·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되었다.

최근 지식기반경제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지식’과 ‘서비스’가 세계경제성장의 양대 엔진(Twin Engines)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총역량을 모아, 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세계경제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OECD 국가 내에서 고도의 성장을 이룬 국가들은 지식집약형 서비스업에서 그 원동력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국가들은 2000년을 전후해서 10년 간 약 59.4%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지식서비스산업의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이 부상함에 따라 세계 지식서비스교역시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제조업의 성장 및 고용창출 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어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선진국 등의 경험에 비추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큰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성장동력화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서비스무역수지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협상 진전 등으로 지식서비스산업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시장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개방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중요성 및 문제점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

1. 지식서비스산업의 의의

1) 지식서비스산업의 정의

지식서비스산업(Knowledge-based Service Industry)에 대해서 뚜렷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각국은 OECD에서 R&D, IT, 고급인력 투입 및 활용도가 높은 통신, 금융·보험, 사업서비스, 교육, 의료, 오락·문화 산업으로 정의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자국의 현실에 맞게 특정 서비스를 가감하여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자원부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정의에 오락문화스포츠부분을 추가하여 정의하고 있다.

<표 1> OECD와 산업자원부의 지식서비스산업의 분류기준

| |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
|-------|--|
| OECD | 통신, 금융·보험, 비즈니스서비스(정보처리·컴퓨터서비스, 연구개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업) |
| 산업자원부 | 통신, 금융·보험, 비즈니스서비스(정보처리·컴퓨터서비스, 연구개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교육,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업), 오락문화스포츠(영화·방송·공연) |

또한 통계청은 지식을 생성하거나 집약적으로 투입하여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 서비스업을 지식서비스업과 기타서비스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식서비스 정의 및 분류에 대하여 OECD와 통계청을 비교해 볼 때, 통계청은 광의의 정의로 OECD는 협의의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용어 사용에서도 지식기반 서비스, 지식집약형 서비스 또는 지식서비스 등을 혼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이라고 통일하여 칭하기로 한다.

2) 지식서비스산업의 특성

지식기반경제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정보와 지식에 기반을 둬 따라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지식과 정보가 가치창출의 주요 원천이다. 농경시대에는 토지와 노동력이 경제활동의 필수요

1) 김영수, “지식기반산업의 지역별 발전동향과 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2003, pp.4~5.

소였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공장설비 및 원자재 확보 등을 위한 자본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 시대에는 가치창출을 위한 지식·정보의 역할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실례로 미국 Microsoft사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Windows”의 경우, 전체 생산비용의 대부분은 연구개발비이며 제품생산에 직접 관련된 비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선진 각국에서도 영국의 ‘Our Competitive Future(1998)’, 캐나다의 ‘Knowledge-based Economy PilotProject(1997)’, 싱가포르의 ‘Strategies for FutureCompetitiveness(1998)’ 등 국가적인 차원의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²⁾.

둘째, 외부효과에 의한 산업구조의 지식집약화 촉진이다. 정보통신망의 확충, PC의 보급 확대 및 가격하락, 개인 및 기업의 컴퓨터관련 교육지출 증가 등 외부요인이 정보통신산업 등 지식집약형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³⁾.

셋째, 규모의 경제발생으로 선점효과가 크다. 지식기반산업 제품의 경우 초기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데 비해 제품생산비용은 적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단위생산비용이 하락하는 것이다. 수요측면에서도 수요가 증가할수록 제품의 효용이 증가하는 네트워크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익숙해진 제품은 변경하기 어려워지는 소비자타성효과로 수요가 증가할수록 한계효용도 더욱 커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2. 지식서비스산업의 중요성

1) 경제성장에 기여

지식서비스산업은 1980~2005년중 연평균 8.0% 성장하여 GDP 성장기여율도 꾸준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 제조업(8.9%)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표 2〉 산업별 성장률 추이

| | 국내총생산 | 제조업 | 서비스업 | 서비스업 | |
|-----------|-------|------------|-----------|-----------|------------|
| | | | | 전통서비스업 | 지식서비스업 |
| 1980~1989 | 7.6 | 10.8(26.8) | 7.5(49.8) | 6.2(27.6) | 10.3(22.3) |
| 1990~1999 | 6.1 | 7.3(27.4) | 5.9(48.1) | 5.2(26.1) | 7.0(22.1) |
| 2000~2005 | 5.2 | 8.3(42.1) | 4.2(39.1) | 2.9(15.4) | 6.0(23.8) |
| 1990~1997 | 7.5 | 7.7(22.5) | 7.2(47.7) | 6.3(25.7) | 8.5(22.0) |
| 1998~2005 | 4.1 | 7.7(47.0) | 3.4(40.2) | 2.5(16.4) | 4.7(23.8) |
| 1980~2005 | 6.5 | 8.9(32.0) | 6.1(45.7) | 5.0(23.7) | 8.0(22.7)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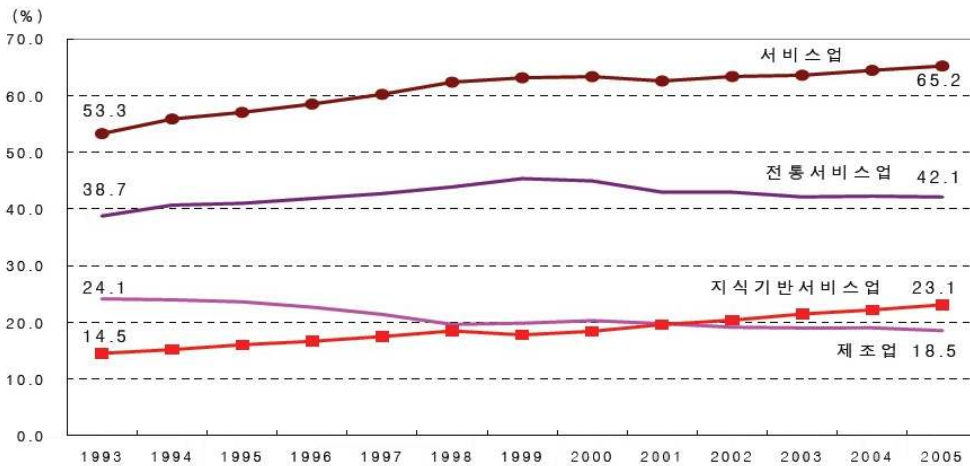
2) 강준구, “주요국의 지식서비스산업 현황 및 시사점”, 『세계경제』2002, p.19.

3) U.K.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0, pp. 2~3.

외환위기 이후 GDP 성장기여율에 있어 전통서비스업이 내수경기 침체로 1990~1997년중 25.7%에서 1998~2005년중 16.4%로 크게 하락한 반면 지식서비스산업은 같은 기간중 22.0%에서 23.8%로 상승하였다.

2) 고용창출에 기여

1993~2005년중 산업별 취업자 비중추이를 <그림 1>을 통해 살펴보면, 전산업 취업자수가 연평균 1.3% 증가하였으나 제조업은 0.9% 감소한 데 비해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취업자수가 5.2% 증가함으로써 2002년 이후에는 고용비중이 제조업을 상회하였다.



자료 : 한국은행

[그림 1] 산업별 취업자 비중 추이

특히 지식서비스산업은 취업자 비중이 1993년 14.5%에서 2005년 23.1%로 크게 상승하는 등 1990년대 이후 고용창출산업으로 기능하였다. 지식서비스산업은 고학력 취업자 비율과 임금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 높아 고급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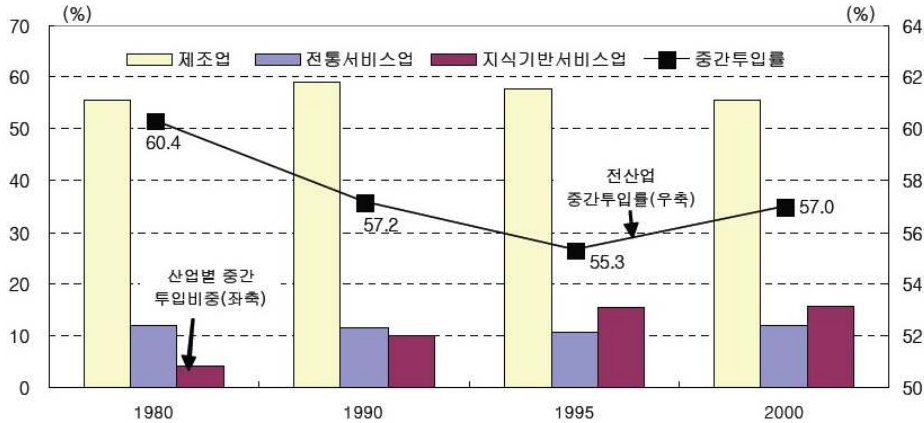
또한 지식서비스산업은 성장속도가 전통서비스산업보다 빠르고 취업유발에 있어서도 제조업 등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향후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⁴⁾.

3) 생산활동에 기여

지식서비스산업은 제조업 등 여타 산업의 생산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어 전체 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하였다.

4) 김현정,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분석」, 한국은행, 2006.

전산업 생산에 대한 지식서비스의 중간투입비중은 1980년 4.3%에서 2000년 15.7%로 상승하여 제조업의 중간투입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자료 : 한국은행

[그림 2] 산업별 중간투입비중 추이

특히 경제가 고도화될수록 생산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아웃소싱이 확대되면서 지식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중간투입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도 지식서비스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기여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⁵⁾

4) 경제안정에 기여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은 생산활동의 변동성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경제적 비중 증가가 경기변동폭을 축소하는 기능을 한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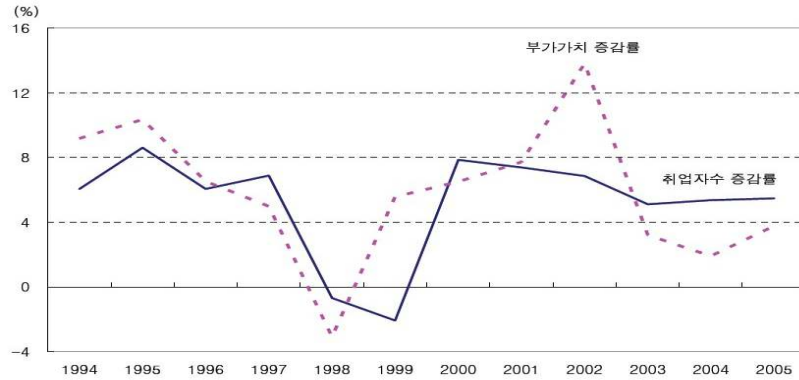
지식서비스산업도 생산활동의 변동성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1980년 이후 경제내 비중이 크게 높아져 경제의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한편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흡수폭은 제조업은 물론 전통서비스업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외환위 이후 여타 산업과 달리 오히려 크게 확대되어 제조업의 고용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은 선장이 둔화되는 경우에도 취업자 증가둔화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고용 안정화에 기여한다.

5) Oution. N, "Must the growth rate decline? Baumol's unbalanced growth revisited.", Oxford Economic Papers, 53, pp.605-627, 2001.

6) 김희석 외,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의 한계와 대응방안의 모색", 「KIET 산업경제」, 2007, pp.36-37.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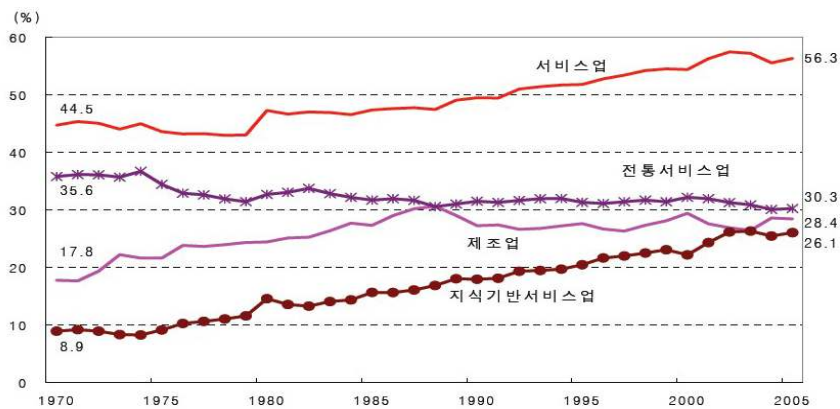
[그림 3] 지식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및 취업자 수 증감률 추이

3. 지식서비스 산업의 현황

1) 생산 및 고용현황

지식서비스산업의 명목 GDP대비 비중이 1980년대 초반 15% 수준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26.1%로 크게 상승하였다.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의 생산액(부가가치)은 2005년중 187.1조원으로 명목 GDP(산업별 부가가치의 합계)의 26.1%를 차지하여 규모면에서 제조업(28.4%) 및 전통서비스업(30.3%)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자료 : 한국은행

[그림 4] 산업별 명목부가가치 비중(對 GDP) 추이

한편 고용측면에서 보면 지식서비스산업의 고용은 2005년 현재 528만명으로 전체 고용의 23.1%를 차지하여 제조업 18.5%(423만명)를 상회하였다. 이는 1993~2005년중 취업자수가 제조업은 연평균 0.9% 감소한 데 비해 지식서비스산업은 5.2% 증가하여 취업자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표3〉 우리나라의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 만명, %)

| | 1993(A) | 1995 | 2000 | 2002 | 2003 | 2004 | 2005 | B-A | 증감율 |
|-----------|---------|-------|-------|-------|-------|-------|-------|-----|------|
| 전산업 | 1,956 | 2,041 | 2,116 | 2,217 | 2,214 | 2,256 | 2,286 | 330 | 1.3 |
| 농림어업·광업 | 264 | 243 | 226 | 209 | 197 | 184 | 183 | -81 | -3.0 |
| 제조업 | 472 | 482 | 429 | 424 | 421 | 429 | 423 | -48 | -0.9 |
| 전기가스수도·건설 | 177 | 198 | 165 | 180 | 189 | 189 | 189 | 12 | 0.5 |
| 서비스업 | 1,042 | 1,164 | 1,340 | 1,404 | 1,408 | 1,454 | 1,490 | 448 | 3.3 |
| 전통서비스업 | 758 | 837 | 951 | 953 | 932 | 953 | 962 | 204 | 2.5 |
| 지식서비스업 | 284 | 327 | 389 | 452 | 475 | 501 | 528 | 244 | 5.2 |

주 : 1993~2005년 중 연평균
자료 : 통계청

2) 무역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의 수출과 수입은 1980년 이후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과 개방화 확대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수출은 1980년 4.9억 달러에서 2005년 143.2억 달러로 연평균 14.5%, 수입은 같은 기간중 8.8억 달러에서 258.2억 달러로 연평균 15.0% 각각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서비스 무역에서 지식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확대되었다.

〈표 4〉 지식서비스 무역추이

| | | 1980(A) | 1990 | 1995 | 2000 | 2002 | 2004 | 2005(B) | B/A(배) |
|----|-------|---------|-------|-------|-------|-------|-------|---------|--------|
| 수출 | 서비스 | 25.7 | 96.4 | 228.3 | 305.3 | 293.9 | 418.8 | 435.7 | 17.7 |
| | 전통서비스 | 20.8 | 68.2 | 150.3 | 213.1 | 202.2 | 300.6 | 310.5 | 14.9 |
| | 지식서비스 | 4.9 | 28.2 | 78.0 | 92.2 | 81.7 | 118.2 | 143.2 | 29.2 |
| 수입 | 서비스 | 32.9 | 102.5 | 258.1 | 333.8 | 365.9 | 499.3 | 584.7 | 17.8 |
| | 전통서비스 | 25.1 | 69.7 | 154.0 | 176.6 | 208.2 | 280.7 | 326.5 | 13.0 |

| | | | | | | | | | |
|--------|-------|-------|------|-------|-------|-------|--------|--------|------|
| | 지식서비스 | 7.8 | 32.8 | 104.1 | 157.2 | 157.7 | 218.6 | 258.2 | 33.1 |
| 수 지 | 서비스 | -7.2 | -6.1 | -29.8 | -28.5 | -82.0 | -80.5 | -130.9 | 18.2 |
| | 전통서비스 | -4.30 | -1.4 | -3.7 | 36.5 | -6.0 | 19.9 | -15.8 | 3.7 |
| | 지식서비스 | -2.9 | -4.7 | -26.1 | -65.0 | -76.0 | -100.4 | -115.1 | 39.7 |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각호

그러나 지식서비스산업은 경쟁력 저위, 수출산업화 미흡 등으로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욱 크게 증가하면서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적자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2005년중 지식서비스산업 무역적자 규모는 115.1억달러로 1980년 2.9억달러의 39.7배로 확대되었다.

3) 시장개방

우리나라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타결시 지식서비스를 일부 개방한 이후 점차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UR 이후 WTO/DDA 서비스 협상 1차 양허안(2003.3)에서는 1996년 이후 실제 개방사항을 주로 반영하여 법률, 교육, 국제배달 등 26개 업종을 추가양허(155개 업종중 104개 업종 개방, 67.1%)하였다.

2차 양허안(2005. 5)에서는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하여 그간 제한하였던 전문직 계약서비스공급자 중 회계사, 건축사, 경영자문 등 10개 직종을 양허하였다.

한편 1990년대 중반이후 수차례에 걸쳐 외국인직접투자 제한이 철폐됨으로써 지식서비스분야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투자가 자유화되었다. 2006년 현재 라디오·TV방송업이 유일한 미개방 업종이며 국내운송, 신문·잡지·정기간행물 등은 일정 한도 내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 등 서비스 시장개방도는 국내규제가 과도한 교육, 보건, 문화오락 부문 등을 중심으로 미국, EU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⁷⁾.

Ⅲ. 미국과 일본의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정책 분석

1. 미국의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정책

1)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 및 교육개혁

80년대 이후 좀처럼 활기를 찾지 못하던 미국 경제가 90년대 중반 들어 활력을 되찾고 있는 이유는 무

7) Golub, Stephen S, "Measures of restrictions on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or OECD countries", ECO/WKP, OECD, 2003.

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그 근본은 정보화를 축으로 한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일 것이다.

지식기반산업은 고성장, 저인플레이션, 저실업률을 특징으로 하는 소위 미국 경제의 신경체화를 가져왔다. 미국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정보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식기반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터전을 다져놓았던 것이다⁸⁾.

또한 미국은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보인프라 구축, 교육훈련 강화 등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개선이라는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우선, 지식창출과 관련해서 미국은 교육목표를 개인의 창의성 발휘에 두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정답없는 교육이 중심을 이룬다.

이러한 방침은 대학까지도 마찬가지이다. 문제풀이를 위해서 학생이 가정을 만들고 논리를 세워야 하며, 다른 대안까지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은 억지로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범국가적 지식공유·확산·활용시스템 구축

지식의 공유 및 확산과 관련해서 미국은, 정부 부처, 교육기관, 연구소등 공공부문을 연결하는 범국가적 지식활용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States Inventory Project(SIP)를 추진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의 목적은 미국 전지역에 산재해 있는 지식을 집적하여 지식의 활용을 효율화하자는 것이다.

SIP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 온라인 관련법, 공공프로젝트, 통신관련 인구통계, 전략적 계획 등 12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시스템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정책 입안자, 교육기관, 연구자, 정보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내용이 충실화되는 한편, 쌍방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3) 지식경영의 도입

지식경영은 이미 기업에만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지식기반산업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미국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지식=비용”이라는 정부로의 전환을 통하여 지식경영을 과감히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美 국방성이다. 美 국방성은 작년 말 「국방개혁백서」를 통해 “비전 2010”이라는 국방성 경영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지식경영을 통하여 국방성의 경영효율을 극대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美 국방성이 이같은 전략을 도입키로 한 것은 지식을 공유하는데 있어서 인쇄물은 더 이상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美 국방성은 2000년 1월까지 모든 계약에서 필요한 서면문서를 없앨 계획이다.

특히 병참부문에서는 일본 토요타자동차의 판매특허였던 Just-in Time방식을 도입하여 군장비와 보급품의 현황을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할 방침이다.

8) 오상봉·김인중,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1998, p.49.

이와 같이 미국은 지속적인 정보인프라 구축, R&D투자지원 등을 통하여 저시업과 고성장을 동시에 달성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경우 80년대 이후 진행된 기업구조조정에 따라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 고용창출로 인해 실업률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1980년 이후 미국 근로자중 약 4,300만 명이 구조조정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으나,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으로 7,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남으로써 2,800만 명의 순고용 증가가 있었다.

2. 일본의 지식서비스산업 지원정책

1) 일본 지식서비스산업 정책의 특성

일본이 신규산업(지식기반산업)을 들고 나온 이유는 90년대 들어 시작된 장기불황이 신규산업의 발흥에 기인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통산성은 정보통신, 물류유통, 의료복지 등 15개 신규산업을 선정하고, 이의 발전을 위해 1997년부터 관련 부처간의 협력체제에 기초한 “신규산업 창출 환경정비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다. 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시에 대한 평가 등 follow-up을 추진하고 있다⁹⁾.

이들 관련 부문은 2010년까지 시장규모면에서 연평균 6.9%, 고용면에서 3.4%정도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이 제시한 15개 신규산업은 지식기반산업의 개념과 대동소이하여, 육성정책도 정보인프라구축, 교육개혁, 지적재산권보호, 연구개발지원정책 등으로 다른나라의 경우와 비슷하다. 다만 종전에 비해 다른점은 규제개혁과 간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네 가지의 특징을 들 수 있다.

〈표 5〉 일본의 15개 성장유망신규산업

| 성장유망신규산업 | |
|-----------------|-----------------|
| 1. 의료복지 관련분야 | 9. 유전공학 관련분야 |
| 1. 생활문화 관련분야 | 10. 도시환경정비 관련분야 |
| 3. 정보통신 관련분야 | 11. 항공우주 관련분야 |
| 4. 신제조기술 관련분야 | 12. 신에너지 관련분야 |
| 5. 물류유통 관련분야 | 13. 인재 관련분야 |
| 6. 환경 관련분야 | 14. 국제화 관련분야 |
| 7. 비즈니스 지원 관련분야 | 15. 주택 관련분야 |
| 8. 해양 관련분야 | |

자료 : 일본 통산성, 1996. 12.

9) 오상봉·김인중, “전개논문”, pp.87-91.

2) WTO 형의 간접적 산업지원 정책

첫째, 일본의 신규산업 발전정책은 환경조성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지원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장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요인을 제거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재양성 등 환경을 조성하는 것들이 중심이다.

중전의 지원정책에서 핵심이었던 자금지원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개혁을 통하여 가능하면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특히 벤처관련 중소기업 지원도 정부지원보다 민간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일본의 경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에서 경쟁이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규제가 심한 일본으로서는 규제개혁을 과감히 시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셋째, 제시된 신규 성장산업 수가 15개로 많을 뿐만 아니라, 각 산업부문 또한 상당히 포괄적이다. 이는 정부의 자금지원상한계가 있고, 도 정책의 목적이 특정산업의 육성보다는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에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넷째, 과거의 산업정책과는 달리 제조업만이 아니라 서비스산업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 부문은 국내의 경쟁압력을 통해 어느 정도 규제 완화가 이루어진데 반해 서비스 산업은 해외로부터의 경쟁이나 규제완화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없이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정책변화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IV.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1. 정책의 기본방향

앞에서 살펴본 지식 서비스정책에 대한 선진국 사례는 향후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고 있다. 몇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하여 향후 지역 서비스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화 추세를 고려

물리적 생산과 지식서비스 간의 밀접한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연구나 매우 많다. 예를 들어 호웰스(Howells, 2001)는 제조업은 점점 서비스를 닮아가고 있다고 본다. 매우 단순한 수준에서 보면, 제조기업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서비스를 통해 실현하고 있다. IBM과 지멘스의 경우 매출액의 50% 이상이 서비스활동으로부터 창출된다. 후지쯔가 소유한 영국의 컴퓨터업체인 ICL은 현재 완전히 제조기능을 포기한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을 호웰스는 ‘제조업의 서비스화(servicization)’라고 한다.

이러한 추세는 결국 상당수의 제조업에서 가치창출이 서비스활동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지식서비스는 현대 생산프로세스의 내제적인 통합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생산활동과 생산자서비스를 별개로 인식하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제조프로세스에서 서비스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개념조차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POSCO의 철강,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삼성의휴대폰 등 첨단기술제품의 생산 및 매출에서 서비스가 기여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는 제조활동의 그늘에 가려져 그 존재 자체가 식별되지 않는다. 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디자인, 법률, 회계 등 서비스기능이 대부분 자체 조달(in-house)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서비스가 제조업체의 내부에서 수행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활동이 기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전통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필요 기능을 내부화 또는 외부화하는 것은 기업이 처한 경영환경의 기밀성(confidentiality), 표준화, 불확실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Coffey & Polese, 1989).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내부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밀성인 것을 판단된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거래비용 관점에서 내부화가 훨씬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서비스업 특히 지식기반 비즈니스서비스의 경우 그 기반이 취약하여 제조업의 수준 높은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어쨌든 제조업의 생산활동은 제조기능뿐만 아니라 서비스기능을 포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지역 서비스정책도 제조업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의 전략산업 발전 체계 정리에 있어서 서비스기능 외부조달이 주요 고려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2) 서비스의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을 동시에 고려

수요와 공급이 일치될 때 가장 안정적으로 가격과 공급량이 결정된다는 것은 경제원리의 기초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역 서비스정책에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서비스정책은 서비스의 공급 측면과 도시에 수요 측면을 고려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지 않은 채로 공급 측면만을 고려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공급 측면의 접근은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서비스공급자 생성 그 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역량을 갖춘 인력이 충분한 공급은 첨단 지식서비스 기업을 유치하거나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교육 및 훈련제도와 더불어 인적자원 정책은 사회·문화·정치적 환경 개선을 위한 수단도 포함하여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 지식서비스의 존재는 제조업을 비롯하여 보완적인 경제활동을 유치하거나 생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수요 측면의 접근은 첨단 지식서비스 기업의 초기 생성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충분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캐나다 퀘백의 엔지니어링 컨설팅서비스의 성장은 수요 측면 접근의 좋은 예가 된다. 또한 지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역외 기업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서비스를 수요하도록 독려하는, 이른바 지역적 수입대체(regional import substitution)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급 측면 접근이나 수요 측면 접근 어느 하나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양자가 동시에 추진될 때 성공확률이 높아진다. 가령 인적자원 정책이 수요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정책도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이 동시에 정책체계에 포함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서비스 육성을 위해 대규모 정부발주 프로젝트를 활용한다든지, 생산 서비스를 수요 하는 대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 등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심층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입지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모든 서비스가 모든 지역에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보다는 전남, 전북, 경북과 같은 지역이 오히려 많은 집적지 수를 보이는 등 대체로 분산되어 있다. 이는 금융이 지역의 크기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연구개발의 경우 서울보다 경기가 훨씬 더 많은 집적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경기지역에 밀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고나 디자인의 경우에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다. 이는 풍부한 수요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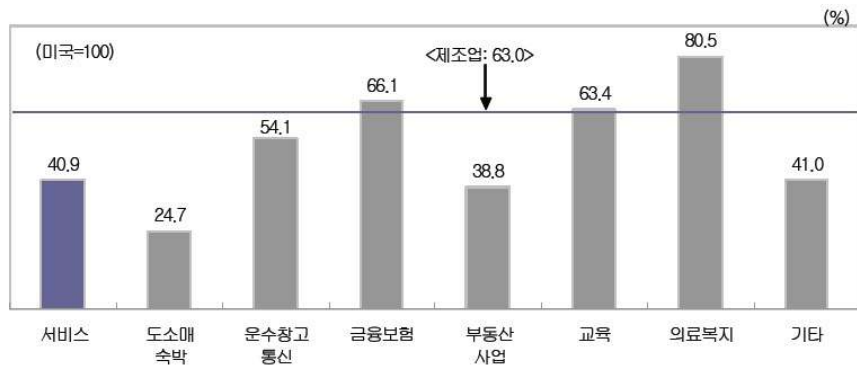
이처럼 지역특성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가 달라지는 것은 지역별로 보유한 입지요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의 규모, 주력산업, 인구 구성 등 서로 다른 요소들로 인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공간경제 연구에 따르면, 대도시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 않는 인구 2.5만~10만 명 수준의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가 된다고 한다(Coffey & Polese, 1989). 이 연구에 따르면, 대도시권의 그늘에 있거나 일정 규모 이하의 도시에서는 지식서비스 특히 비즈니스서비스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대도시권 이외의 지역에서 가능한 서비스업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들은 대체로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의 제조업 또는 제1차산업 기업 등 지역의 경제활동 수요를 충족시키는 비즈니스서비스이다. 둘째, 지역의 공공부문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서비스가 가능성이 있다. 셋째, 표준화되거나 일상화된 특정 지원업무, 즉 자료처리, 우편주문활동, 콜센터 등과 같은 백 오피스(back office) 서비스기능이다. 마지막으로 제1차산업 또는 제조업 부문에서 장기간 지역적 전문성에서 유발되는 교역 가능한 특수서비스이다. 따라서 지역 서비스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이 같은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2. 정책적 지원방안

1) 경쟁환경의 조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

현재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금융·보험의 경우 미국의 60%, 사업서비스(부동산 포함)의 경우 40% 내외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도 미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그림 5] 우리나라와 미국의 서비스산업 노동생산성 비교(2003년 기준)

이러한 낮은 노동생산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제한 등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 또는 완화하여 국내기업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¹⁰⁾.

현행 지식서비스산업의 엄격한 자격증 제도(예:법률, 의료) 등 진입장벽은 철폐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선진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국내외 업체간 경쟁을 유도하고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기술습득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2) 인력양성 및 금융지원 강화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은 관련 인력의 질적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사업서비스 등 고급인력수요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전문대학원 설립확대 등을 통해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은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사업서비스와 의료·보건 등은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비롯한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 정보를 DB화 하여 인적자원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삼성경제연구소, “서비스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의 조건”, SERI 경제포커스, 제119호, 2006, p.27/

또한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IT 등 첨단제조업과 같은 수준으로 정책적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대외무역법 개정 등을 통해 서비스 수출에 대한 정책지원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물품, 용역(경영상담, 법무, 회계·세무, 엔지니어링,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 문화산업, 특허권 등의 양도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만 포괄하고 하고 있는 것을 운송·관광분야와 전문직 서비스는 수출유망분야이면서도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해외시장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체제 구축이 미비하다.

이와 더불어 현재 수출입은행법에 무역금융지원대상이 상품 및 대외 기술제공으로 제한되는 것을 지식서비스산업까지 확대하고 국제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3) 산업인프라 확충

지식서비스업 관련 통계편제 확대 및 DB 구축 등 통계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관련부처의 지원기능을 통합하여 정부 지원체계의 효율화 및 일관성 제고도 도모해야 한다.

현재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기초통계가 부족하고 산업분류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실태분석 및 정책수립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지식서비스산업 분류체계를 표준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관련 통계를 확충하고 통계DB를 구축하는 등 통계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여러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지식서비스업 관련 정부지원기능을 통합하여 지원체계의 효율화 및 일관성 제고를 도모하고 부처간 조정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밖에 서비스의 질에 대한 정부 인증제도 및 전문가자격제도 확충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표준화도 시급하다.

(1) 서비스 통계기반의 확충

정책수립에 있어 통계는 매우 중요한 투입요소이다. 이는 통계가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에 관한 통계는 그 동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반면, 서비스에 관한 통계는 매우 부실한 상태이다. 더욱이 지역별 서비스에 관하여는 매우 취약하여 이를 통해서 지역서비스를 연구하거나 지역 서비스정책을 수립하기가 곤란할 정도이다.

또한 서비스와 관련된 통계는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 국민소득 및 산업연관관계에 필요한 통계는 한국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다. 그런데 물론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기관의 통계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둘을 연계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서비스통계의 질적 수준 제고와 더불어 통계청과 한국은행 간 통계체계의 일원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통일된 통계체계하에서 두 기관이 통계수집 및 가공에서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통계정비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에서 부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2) 서비스 정책체계의 일원화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인 활동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다. 표준산업분류(KSIC)를 보더라도 20개부문 중 13개 부문(G~S)이 서비스업이다. 이에 반해 제조업은 1개(D), 1차산업은 3개(A~C), 유틸리티 1개(E), 건설 1개(F), 그리고 기타국제 및 외국기관 1개(T)에 불과하다. 이처럼 광범위한 서비스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주관 부처도 매우 다양하여 거의 모든 부처가 서비스업에 관여하고 있다.

이처럼 담당 서비스가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것은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각 부처별로 각기 다른 정책방향에서 각기 다른 정책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업 전체로서 일관된 정책을 개발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가 된다(김휘석 외, 2002). 즉, 정책역량을 분산시키고, 서비스중사 업체들에게 불확실성과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에서는 재정경제부를 주관 부처로 선정하여 2001년 국내 최초로 서비스분야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 이후 2002년의 DDA 협상대책, 2003년 관광·스포츠·문화분야 경쟁력 강화대책, 2004년 지식기반서비스 육성대책 등에 이르기까지 재정경제부가 주관 부처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5년에 들어서는 정보통신부(2005.7.)의 정보통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과학기술부(2005.10.)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방안이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정책조정회의의 주요 안건으로 상정되기도 하였다.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2005년에는 국무총리 주재의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두차례(3월 및 8월)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서비스 정책에 대한 조정 및 통합기능이 재정경제부에 주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어디에서 서비스의 통합 및 조정기능을 갖느냐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대신 이 기능을 보유한 부처가 강력한 통제력과 리더십을 발휘하여 부처별로 기복이 심한 정책수단과 방법을 조율하고 통합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서비스의 조정 및 통합 기능을 갖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서비스의 정책조율 및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화 현상이다. 이는 앞서서도 논의하였지만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이는 앞서서도 논의하였지만 매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제조기능과 서비스 기능이 유리되어서는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환경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서비스업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은 다분히 인위적일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인 사고이다(Seyvet, 1999). 이에 따라 정책체계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체계로 전화되어야 한다.

4) 전문 지식서비스기업의 양성

우리나라 서비스기업은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으며 특히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매출규모 등의

측면에서 크게 열위에 있다. 서비스업이 발달한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서비스업체 규모는 미국업체에 비해 매우 영세하고 생산성도 저위에 있다.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 미국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에 비해 종업원 규모에서 3배, 매출액은 2배 정도 평균적으로 크다.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의 기업규모가 지나치게 영세하여 산업으로서 발전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전문화·대형화를 통한 기업적·산업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핵심 사업서비스의 하나인 법률서비스의 경우 미국, 영국 등은 로펌을 중심으로 빠르게 산업화, 국제화되고 있음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1인 개업 변호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연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한·미 FTA 체결 등 대외개방에 따른 외국업체와의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법률·회계 등 사업서비스업체와 영화 등 문화산업 관련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업계는 M&A 등을 통해 대형화·전문화를 추진하고 경쟁력이 낮은 업체는 경영합리화를 위한 다각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편 정부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V. 결 론

21세기의 국제통상 환경은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 혹은 디지털경제(DigitalEconomy)의 전환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조성되고 있다. 최근 지식기반경제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지식’과 ‘서비스’가 세계경제 성장의 양대 엔진(Twin Engines)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역량을 집중시켜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정책으로 추진하여 국제통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지식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높여 자국의 국민총소득과의 상관관계에서 다른 어떤 산업보다 최우선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식서비스산업은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의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한국의 지식서비스산업 비중은 일본, 이탈리아 등과 비슷한 수준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10년간 OECD국가들의 성장을 주도한 산업이 지식집약형 서비스업이다.

한국은 제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선진국에 비해 산업구조가 취약하다. 제조업에 치중되어 있어 지식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OECD국가들에 비해 서비스의 지식집약도가 낮아 지식서비스를 통한 성장유발 효과가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이 과제이다.

지식서비스산업은 현재 성장기에 있는 산업으로 다양한 시장분화 및 급성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에서 서비스 및 인력의 해외이전은 자유롭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장경쟁이 격화되고, 소비자 및 기업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차별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지원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리

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나라 지식서비스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i) 경쟁환경의 조성, ii) 인력양성 및 금융지원 강화, iii) 산업인프라 확충, iv) 전문 지식서비스기업의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식서비스산업 및 기업에 지원함으로써 향후 시장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서비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준구, “주요국의 지식서비스산업 현황 및 시사점”, 「세계경제」2002.
- 강준구,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이익과 과제: 국내 소매업의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경제개방 연구서리즈 04-0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12.
- 김영수, “지식기반산업의 지역별 발전동향과 정책시사점”, 산업연구원, 2003.
- 김현정, “서비스산업의 신성장동력 가능성 분석”, 「금융경제연구 제254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6. 5.
- 김휘석 외,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의 한계와 대응방안의 모색”, 「KIET 산업경제」, 2007.
- 노전표, “비즈니스서비스기업 경쟁력 현황 및 과제”, 「지식서비스산업 발전 방향」,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산업자원부, 산업연구원 주체 「제1회 지식서비스 포럼」자료, 200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국의 서비스 무역장벽”, 2006.4.
- 박진수, “서비스산업 발전방향”, KIET 「산업경제」, 2005.7
- 산업연구원, “지식서비스산업 발전방안”, 2006. 4
- 산업자원부, “지식서비스산업 발전방안 - 비즈니스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2006. 4
- 오상봉·김인중, “지식기반산업의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1998, p.49.
- 전국경제인연합회, “서비스산업 성장을 통한 고용 확대방안”, CER-2006-09, 2006.6
- LG경제연구원, “한미 FTA와 서비스업 경쟁력의 현주소”, 「LG 주간경제」제881호, 2006.4.
- Fisher. J. D. M, "Technology Shocks and the Business Cycle", *Essays on Issues* No. 187, Chicago Fed Letter, Mar. 2003.
- IMD, *World Competitive Yearbook*, 2005.
- Li, X., David Greenaway and Rober C. Hine, "Imports of Services and Economic Growth : a Dynamic Panel Approach", *Mimco*, May 2003.
- Mitsuru Mizuno, "Development of the Service Sector in Japan and its Implication for the Economy", *Pacific Economic Review*, 2005.
- OECD, "The Service Economy in OECD Countries", *STI Working Papers*, 2005. 3.